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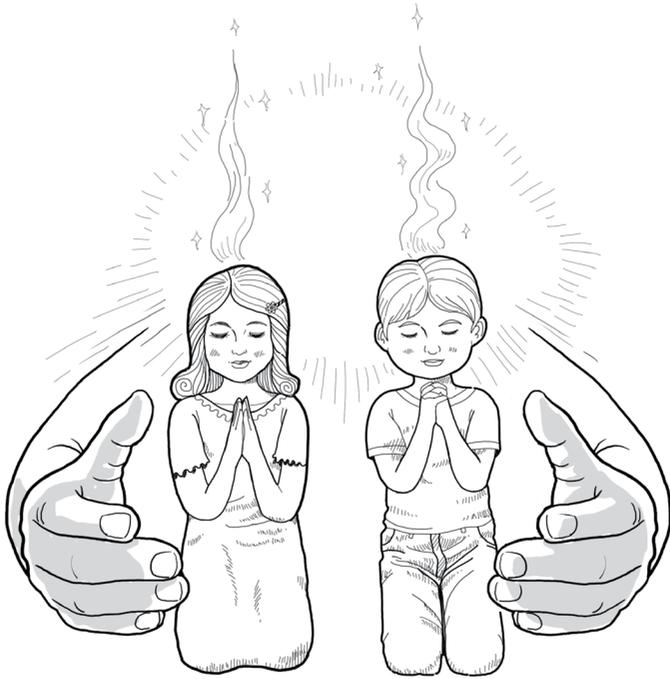
응답받는 기도

눅 11:1~13, 18:1~8

은혜찬송 158장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찬양 70장 (기도)



1.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조건을 압니다.
2.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알고 실제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눅 18:6~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을 이해하기

우리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간청하므로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실천한 믿음의 사람 중에 죠지 물러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친구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63년간을 기도했는데, 그 친구는 물러가 죽고 난 후 구원 받았습니다. 물러의 끈질긴 기도는 그가 죽은 후에 결국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기울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눅 18:6~8).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시 66:18).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일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한 후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 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14:36)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적이며 다분히 감정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요일 5:14).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할 경우입니다. 성경은 믿음 없는 기도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약 1:6~7).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막 11:24).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났듯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요 14:13).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눅 11:9~10)

So I say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Lk 11:9~10)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적어 보세요(눅 11:11~13).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 것들을 생각나는대로 모두 적어 봅시다.

1)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약 4:2~3).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마 26:41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이

요 15: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요 15:1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빌 4:6~7

가
무

골 4:2

미
나

약 1:5~6

하
미

요일 5:14~15



기도 응답

신앙 세계에 있어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큰 일을 위한 기도 일수록 응답을 늦게 받은 것을 교회사에서나 신앙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일본 최대의 고아원을 창설한 이시이 유지(1865~1914)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도미다씨에 의하면 그는 곧잘 옛날에 기도한 것을 읽어주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자신에게 말해 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시이 유지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고아원의 본관에 그가 매일 기도하기 위해 정좌했던 돗자리에 무릎 모양으로 깊이 패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감리교 신자인 기도의 사람 카라바쓰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때문에 무릎에 혹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큰 나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큰 응답도 하루 아침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응답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 7:8)



질문 있어요~



성경과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경과 세상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직접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래 사람들은 절대자는 한 분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었지만,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고 피조물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롬 1:21~23, 25).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나,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를 짓지 말라는 계명은 주지만 죄를 사하지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의 신이 있지만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준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셋째,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라”고 강요는 하지만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에게 짐을 더욱 지우는 것이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낌없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마 11:28, 시 68:19).

넷째, 세상의 종교는 많은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지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많은 종교의 깨달음은 각자가 깨달아야 할 것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의 깨달음은 그 내용을 말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깨달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므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외국사람이나 한국사람이나 간증이 동일한 것입니다(롬 10:17, 딤후 1:4, 벧후 1:1, 유 1:3).

위와 같은 차이점들이 있으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옳지 못하고 그 길로는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행 4:12)